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46호

창조절 열한 번째 주일

2020년 11월 15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온 누리에 풍성함이 | 김필연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하여라(J. S. Bach)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43장(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열한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42:5), 우리가 함께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사 65:18),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시 89:12).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회 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목 사: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회 중: 편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시 123편).

경배찬송

515장(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사사기 4:1-7 **1부: 윤경하 집사**
2부: 안상호 집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불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1-11 **1부: 정연희 집사**
2부: 명재미 집사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씌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5:14-30 **목사**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

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고순희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깊은 강(Afro-American Spiritual) 1부: 정록기 집사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이현철 곡) 2부: 이예랑 교우
설교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285장(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주 너를 늘 지켜 주시리라(W. S. Martin)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새교우 등록실(친교실 옆)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우소식

▶공연: 김선아 집사(‘모차르트 레퀴엠’-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11월 14일(토)
오후 5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2. 한가위감사절 현금

11월 4일(수요일)까지 2020년도 한가위감사절 현금은 31,307,000원입니다(예산: 41,000,000원). 어려운 가운데 현금을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3. 세례·견신례 교육

▶일시: 오늘(11월 15일), 다음 주일(11월 22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여신도실(선교관 3층)
▶세례문답: 11월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당회실
▶문의: 배영호 목사

4. 대림절 묵상집

대림절 묵상집(대한기독교서회)을 판매합니다(문의: 사무실 / 권당 2,000원).

5. 다음 주일(11월 22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수요 기도(11월 25일)	
조규곤 장로	1부	유지환 집사 · 서지영 집사	아침	박소영 집사
	2부	김문식 집사 · 공순복 권사	저녁	최종학 장로

특별봉헌 11월 1일

감사헌금

김관수·양순희(건강주심), 김길주(부모님 추모), 김민정(십일조), 김범수(감사), 김성식·김원희(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종현·송승연(매사에 감사), 김진환·황나리(감사), 박미희(故 박선희 교우 1주기 추모), 박연길·박수미(박인준 생일), 박재하·이가희(삼남 박승진 군대 휴가), 박종호·정희락(항상 감사드리), 윤지선(범사), 이강송·채해림(십일조), 이수원·임보경(소금이 감사, 순산 기원), 이영근·배상은(좋은 가정 이루게 하심), 정연희(감사), 조영방(감사), 조트리오(故 조상현 장로님 10주기 추모), 최정옥(범사 감사), 채수일·김경숙(범사 감사), 황영시·최옥영(심방 감사)

지정헌금

여해 강원용 목사 흉상 건립 헌금

박세훈·장은영

주일에배(1, 2부) 참여방법 안내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에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에배', '성경인물탐구(수요일)', '주제로 읽는 성경(금요일)'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예배와 집회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교육관 203호	고린도후서 9:8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고린도후서 9:8-9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박재준 전도사
중 · 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고린도후서 9:6-15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마가복음서 12:13-17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박선교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17:00 장공채플실	생명평화기도회		

수요 아침예배 · 저녁성경공부(11월 18일 본당)

	아침예배(오전 11시)	저녁성경공부(오후 7시 30분)
인도 오르가니스트	박연길 목사 이재림 집사	채수일 목사 권정원 집사
전주 · 송영	오르가니스트	
예배부름	인도자	
찬송	540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4장(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알리는 말씀	인도자	
기도	박지호 집사	박재윤 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서 9:1-9	누가복음서 23:1-12
설교	‘부름과 파송’ 박연길 목사	‘빌라도 총독’ 채수일 목사
찬송	53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461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축도	목사	
송영 · 후주	오르가니스트	

다음 주일 말씀

11월 22일(창조절 열두 번째 주일)

성 경: 구 약(에스겔서 34:11-16)

서신서(에베소서 1:15-23)

복음서(마태복음서 25:31-46)

설 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채수일 목사